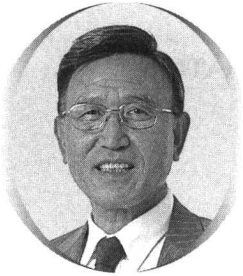


就 任 辭



최 병 수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과 협회의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에 앞서 회장으로 서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963년 협회가 창립된 후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초석을 다지고, 그동안 산업보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40년간 협회를 이끌어 오신故 최영태 회장님, 조규상 회장님, 이승한 회장님, 윤임중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전임 윤임중 회장님께서서는 협회의 단결을 강조하시면서 협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1983년 협회와 인연을 맺은 후 앞만 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당시 협회는 적극적인 사업의 전개가 어렵고 재정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부 산하에 12개 산업보건센타를 갖추어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보된 산업보건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 구조가 변화였으며, 고령·여성 근로자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근로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안전보건에 관한

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의 예방업무와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난 40년 동안 매진하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건 사업의 전개를 위해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성장 위주의 양적 발전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보건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전략사업을 강화하여 산업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재의 육성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간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 해야할 일,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에 적극적으로 정진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를 위하여 그리고 협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선봉자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추진해 온 그리고 앞으로 전개해 나아갈 일들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2. 25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김 배 수